

보도해명자료 (‘18. 11. 9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[포항지진 1년] ③ 지열발전소 타인가...연관성
논란 ‘뜨거운 감자’(‘18.11.9, 연합뉴스)

1. 보도내용

□ ‘정부가 (포항지진) 본진에 앞선 63회 유발지진을 은폐한데 이어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내용’의 인터뷰* 인용

* 신성환 포항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

2.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 입장

□ 정부가 본진에 앞선 63회의 유발 지진을 은폐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
○ 정부는 외부의 자료요구에 따라 63회의 진동 관측결과를 제출하는 등 어떠한 은폐행위도 진행한 바가 없음

□ 정부가 포항지진과 관련하여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
○ 정부는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연관성이 제기됨에 따라, 공동 연구조사단을 구성하여 진상조사를 추진(‘18.3~‘19.2)하고 있음

○ 조사의 객관·투명성 제고를 위해 착수보고회(‘18.3), 시민설명회(‘18.4), 현장실험·설명회(‘18.8), 관계자 간담회(‘18.10) 등을 개최하고

- 최근에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대표 2명을 연구조사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(‘18.10)한 바 있음

□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연구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며,

○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음

※ 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이용필 과장 (044-203-5360)
조우신 사무관(044-203-5358)